



**전주교대, 미래 농업교육 체험 프로그램 실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16일 오후 6시 BSD·BSG 캠퍼스 구축을 위한 '공기정화 식물 심기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은 2023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일환으로 전주교대 실과교육과 이진희 교수가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 공기정화 식물의 효과와 생활안에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나만의 특별한 '수태불', '수경재배 화분'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원예농업 지식을 배우고, 독창적인 작품을 만드는 즐거움을 얻었다.

이진희 교수는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여건에 따라 소규모 클래스로 운영됐지만 참여자들이 실제 손으로 흙을 만지고 작물을 다루며 농업의 가치를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체험 참여자들은 "반려 식물 만들기 경험을 통해 원예농업이 얼마나 다양하고 흥미로운지 알았다"고 말했다.

박병춘 총장은 "대학은 재학생들에게 환경과 농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생태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도서관, 독서 골든벨 성료**

호원대학교 인당도서관은 지난 16일 로비에서 '제7회 도전! 독서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첫 행사를 치르고 제2회부터 군산지역을 소재로 한 저서와 군산지역 출신의 작가를 소개하는 행사다.

이날 열린 독서 골든벨은 개인사진전 '그려온 순간..군산을 걷다'를 개최한 군산 출신의 전세환 작가가 집필한 '군산 시간을 걷다'를 도서로 선정해 군산의 역사와 명소들의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이 행사는 총 상금 11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이에 사전에 신청한 40명이 참여해 대결을 펼친 끝에 최종 14명이 선정, 각 40만원(우승), 20만원(준우승), 10만원(아차상), 5만원(장려상), 2만원(행운상)의 상금을 받았다.

제7회 독서 골든벨 최종 우승자는 한승준(국방무기체계학과 4년) 학생이 차지했다.

한승준 학생은 "다른 지역에서 군산을 방문하는 친구나 친척들에게 군산의 근대역사와 명소를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영수 도서관장(교양과 교수)은 "독서 골든벨이 학생들의 독서 습관 독려와 군산지역의 숨은 보물들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돼 애환심을 고취시키는 행사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장수군 장계 무궁화신품, 나눔 캠페인 펼쳐**

장수군 장계 무궁화신품(송성수 이사장)은 지난 17일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신승수·임재성)에 50만원 상당의 이불 15채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 전국 신품 및 임직원의 기부로 운영되는 신품 사회공헌재단의 '온 세상 나눔 캠페인' 중 하나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용품 지원을 사업이다.

이날 후원된 이불은 장계면 툇개노고과 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전달될 예정이다.

송성수 장계 무궁화신품 이사장은 "점점 추워지는 요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는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고자 신품 직원들의 기부를 통해 마련한 겨울 이불을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이에 신승수 공동위원장은 "지역의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불을 후원해 주신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모범장병들과 함께 전북투어'**

김관영 도지사, 투어 전 장병격려... 상반기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

전북도는 육군 35사단을 비롯 공군 38전투비행전대 등 도내 군부대에서 복무중인 타 지역 출신 장병 40명을 초청해 모범장병 전북투어를 지난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했다.

모범장병 전북투어는 전북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관광자원 등을 소개해 타 지역 장병들에게 전라북도의 멋과 맛을 알리고 관·군 유대 강화를 통해 오피스인 리더 함양과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17일 실시된 이번 투어에서는 전문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탐양제를 따라 진안 마이산 탐사 탐방 △전주

한옥마을 오목대·태조 어진을 모신 경기전·호남 최초의 로마네스크 양식 성당인 전통성당을 방문하면서 전북지역의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투어 시작 전,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청 광장에서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상반기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두 번째 투어를 진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투어가 전북에서 군 복무 기간에 좋은 추억으로 남고, 군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시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우석대 간호대학 '핀 수여식' 개최**

우석대학교 간호대학은 17일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핀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은숙 전북도 간호사회장과 간호학과 교수진, 그리고 가족, 친구, 선후배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졸업예정자 120명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통해 간호사로서의 윤리와 의무를 맹세했다.

또한 촛불 의식을 통해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인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노준희 간호대학장은 "졸업예정자 모두 따뜻한 인성으로 대상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겠다"며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간호 리더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 강화 워크숍**

남원시는 지난 17일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순천 모이러들동조합과 순천민습지에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는 자활 참여자 간 상호 소통으로 유대강화를 유지하고 자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순천 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 편백 배게만들기 체험과 순천민습지 생태체험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는 "순천이 가깝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올 기회가 없었는데 교육과 함께 다른 참여자들과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워크숍 참여 전했다.

남원지역자활센터는 남원역 앞 전북빌딩 4층에 있으며, 비데라남원도점(파스타&피자)의 8개 사업단을 운영해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창)업 및 탈수급을 위한 교육 훈련지원 등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남원지역자활센터장은 "앞으로도 참여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으며, 남원시 오지선 자활지원팀장은 "이번 워크숍으로 자활 참여자들이 힐링을 통한 자립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장계면 장수양봉원,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기탁**

장수군 장계면 장수양봉원(대표 박규춘)은 지난 16일 장계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연말 어려운 저소득층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을 기탁한 박규춘 대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계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장계면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승수 장계면장은 "장계면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 준 박규춘 대표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기부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순창소방·창녕소방 의용소방대, 동서교류 화합 한마당**

순창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지난 17일 경남 창녕군에서 창녕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와 함께 영·호남 교류 행사를 가졌다.

이번 친선·교류는 창녕의용소방대 초청으로 지난 1999년 첫 자매결연을 맺은 뒤 코로나로 인하여 2년간 교류행사를 치루지 못하다가 올해로 2번째 상호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의용소방대 수반체계 전파 선진 소방기술 상호교류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교환을 통해 우의를 증진했다.

이날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 성낙인 창녕군수님, 창녕소방서 정순욱 서장님 김보하·정세연 창녕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주요 내용은 △창녕소방서 의용소방대 환영식 △의용소방대 운영 수반 시례 공유 및 우수 소방행정 상호 공유 △대원 상호 간 긴밀한 유대관계 비탕으로 민간단체 교류 활성화 등이다.

한편, 정순욱 창녕소방서장은 "영·호남 교류행사에 참석한 전북 순창군 의용소방대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며 "이번 행사가 두 지역간 우호를 다지는 뜻깊은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동·서간 화합증진은 물론 재난대응 분야에서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해 지역주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재경 무주군민회, 정비원들에 점퍼 30점 기탁**

재경 무주군민회 회원들이 지난 17일 관내 도로 정비원들에게 전달해달라며 겨울 점퍼 30점(1천2백만 원 상당)을 무주군에 기탁했다.

김철호 회장은 "점퍼는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밖에서 고생하시는 도로정비원 여러분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준비했다"라며 "재경무주군민회는 고향 무주가 안전하고 우리 이웃들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항상 결에서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경 무주군민회(회원 7명)는 수도관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의 모임으로 회원들 모두가 고향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며 해마다 장학금과 이웃돕기 성금 및 상품 기탁을 비롯한 반딧불축제·반딧불 농·특산물 홍보 등에 앞장서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행복나눔터 성과공유회 개최**

장수군은 지난 16일 천천면 하늘내 행복나눔터 강당에서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지어진 각 읍·면의 행복나눔터에 대한 성과공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최훈식 장수군수,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행복나눔터 운영위원회가 각 행복나눔터의 준공 이후 이룬 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와 결과물을 선보였으며, 향후 지역에서 행복나눔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노하우도 함께 공유했다.

최훈식 군수는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행복나눔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운영위원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임실군농협조합운영회, 무주군에 고향사랑 기부**

임실군농협조합운영협의회 소속 임실농협 최동선 조합장, 오수관농협 정철석 조합장, 임실축협 한득수 조합장, 임실치즈농협 이창식 조합장이 각 50만 원씩 총 2백만 원을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탁했다.

이들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응원하는 마음을 모아 무주군에 기탁하게 됐다"라며 "오늘 무주로 향한 발걸음이 무주군 발전에 기여하고 임실군과의 상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기부를 통해 답례품으로 받은 쌀은 임실군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재기부할 것으로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까지 고향사랑의 마음을 모아 보내주시는 임실군농협조합운영협의회 소속 조합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자유총연맹 순창지부,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한국자유총연맹 순창군지회(회장 손승호)는 지난 17일 순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하여 희생된 민간인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제43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거행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순창군지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최영일 순창군수, 신정아 순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희생자 유가족, 군민, 자총연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합동위령제는 장덕식(순창읍 소재) 주지사의 독경, 추도사, 조시낭독, 헌화,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손승호 회장은 "광복 이후 지금까지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밑일이 되신 호국영령의 뜻을 잊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일 군수는 추도사를 통해 "호국영령들의 뜨거웠던 자유수호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자"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